

돼지의 품종 및 성별에 따른 도체특성 및 정육율에 관한 연구

김천제, 정영철¹, 박홍양, 최도영², 이의수², 이찬호², 송민석²
 건국대학교 동물자원연구센터, ¹정P&C연구소, ²건국대학교 축산가공학과

Landrace, Large Yorkshire, Duroc, F1(Landrace × Large Yorkshire)과 비육돈(Duroc×Landrace×Large Yorkshire) 230두를 이용하여 품종 및 성별에 따른 도체성적과 부분육 생산량을 비교·분석하였다. 도체중과 지육율은 품종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F1과 비육돈이 다소 높았으며, Landrace, Large Yorkshire와 Duroc 품종은 암돼지의 도체중과 지육율이 수돼지보다 다소 높았다. 도체장은 F1이 가장 길었으며, Duroc과 비육돈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지방두께는 비육돈이 가장 두꺼웠고, Landrace가 가장 얇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Landrace품종을 제외한 모든 품종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심단면적은 Large Yorkshire가 가장 넓었으며, Duroc, F1과 비육돈은 상대적으로 등심단면적이 좁게 나타났다. 또한 F1과 비육돈은 암돼지가 거세돈에 비하여 등심면적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심, 안심, 삼겹, 후지, 전지 및 목등심 등 주요 6개부위 부분육 생산량은 Landrace와 Large Yorkshire가 가장 생산량이 많았으며, 지육대비 정육율도 가장 높았다. 또한 Duroc품종은 부분육 생산량이 가장 적었으며, 정육율도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비육돈의 낮은 정육율은 Duroc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별에 따른 부분육 생산량은 차이가 없었으나 Duroc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으며, 성별에 따른 지육대비 정육율은 Landrace와 Large Yorkshire의 수돼지가 암돼지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